

지난 10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핵융합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핵융합에너지 컨퍼런스(Fusion Energy Conference)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FEC2010은 총 39개국, 3개의 국제기구에서 1,500명에 달하는 핵융합 석학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고 규모로 진행되면서도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져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되고 있다.

핵융합의 희망 올림픽, FEC를 기억하겠습니다



IAEA FEC 2010
23rd IAEA Fusion Energy Conference

핵융합에너지는 인류가 진정으로 바라던 꿈의 에너지

10월 11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녹색에너지이자 꿈의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FEC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핵융합에너지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세계 핵융합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1 News Letter Winter •

10
11

① 핵융합 석학들의 자유로운 지식 공유의 장, FEC

세계 핵융합연구개발의 최신 성과가 발표되는 Technical Session에서는 16일까지 총 59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의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개막식 날 첫 번째 오버뷰 세션에서 우리나라는 KSTAR의 3차 플라즈마 중간실험 결과(핵융합반응에 의한 중성자 검출, 플라즈마 전류(500kA, 유지시간 6초)를 발표하면서 세계 핵융합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와 더불어 이루어진 포스터 세션은 자신들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② 그린 포럼 & IYC(International Youth Conference)

FEC2010에서는 개막 이전인 10월 9~10일 양일간 그린포럼과 IYC를 개최했다. '21세기 지구환경과 지식에너지'를 주제로 한 그린포럼에는 프랑스 원자력청 Bernard Bigot 청장, 워너 브카르트 IAEA 사무장장과 베르나르 비고 프랑스 원자력위원장, 크리스 로웰린 스미스 경 옥스퍼드대 교수,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 등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IYC에서는 핵융합, 플라즈마 물리를 전공하는 대학생 및 고교생 150여 명이 참석, 자신의 핵융합 연구성과 발표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③④ 새로운 시도가 함께 했던, FEC2010

FEC2010은 행사 내내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핵융합 연구 참여 업체 및 연구소, 대학 등의 첨단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Fusion Tech Exhibition2010'에는 총 16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핵융합 관련 제품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란 주제 아래 Fusion을 새롭게 재해석한 예술품들이 전시된 행사는 'Fusion'의 또 다른 해석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서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핵융합 선도국 다진 'FEC2010'

행사장을 찾은 외국 참가자들은 FEC2010의 성공적인 운영과 KSTAR의 놀라운 성과에 박수를 보냈다. 이처럼 핵융합 상용화 연구의 새로운 반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FEC2010의 국내 개최는 우리나라의 KSTAR를 비롯한 핵융합기술 수준을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핵융합 후발주자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는 핵융합 강국 대한민국. 이번 FEC2010을 통해 생겨난 대한민국의 자신감은 나머지 반세기 동안 지속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NFRI**